

명사십리 노르딕워킹 힐링되네

완도군, 등대치유길 등 6.4km 관광객 호응 “바다 바라보며 숲길 걸으니 스트레스 싹”

완도군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한 ‘해양치유 노르딕워킹 코스’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해양치유 노르딕워킹 코스’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등대치유길, 바다치유길, 숲치유길로 구성돼 있으며 총 길이는 6.4km(서봉각등대-석화포 선착장)이다.

특히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진 등대치유길과 숲치유길은 주민에게 운동 코스로, 관광객에게 산책 코스로 인기가 높다.

해양치유를 통한 운동 효과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한데, 신지면 주민 5~8명은 매일 오후 노르딕워킹 코스를 이용해 꾸준히 운동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주민 최선희씨는 “예전에는 시간이 생겨도 단순히 쉬기만 했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 즐겁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다”며 “향후 모임 인원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지 명사십리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시간을 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왔는데, 코스 중간중간에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어 좋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산책을 통해 몸도 건강해지고 일상에서 쌓인 마음의 짐도 한꺼번에 날릴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5월에 ‘해변 노르딕워킹 대회’를 개최해



완도 신지면 주민들이 해양치유 노르딕워킹 코스를 걷고 있다. <완도군 제공>

해양치유산업 홍보와 함께 노르딕워킹 코스의 매력을 알릴 방침이다. 또 지난해 건립된 해양기후치유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 노르딕워킹 코스는

말 그대로 마음의 치유와 힐링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 졌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완도의 매력을 느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10일 양회수 최고안전책임자와 LR선급의 황선일 동아시아지역 HSE매니저, 안정근 목포시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운전 선박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한 LR선급 인증 기념식이 열렸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현대삼호중 ‘시운전 선박 감염병 대응’ 국제 인증

영국 LR선급으로부터... 코로나 체계적 관리

현대삼호중공업이 영국의 LR선급으로부터 ‘시운전 선박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시운전 선박 감염병 대응 방안’은 선박의 시운전 시 참여인원의 승선 전 준비 절차와 승선 중 관리 방안, 확산 방지를 위한 선내 주요 장비 운영,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축적해온 각종 방역 방법과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박의 안전한 건조와 항해에 관해 국제적으로 높은 신인도를 얻고 있는 영국의 LR선급으로부터 이번

에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은 선박 건조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선주와 선급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를 통해 선박 건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회수 현대삼호중공업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드론과 ICT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검사를 확대해 불필요한 감염병 노출 위험을 줄여왔다”면서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시운전 중 나타날 수 있는 선상 감염 확산 사태에도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10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남형 ESG 실천을 위한 공동협약식’에서 각 기관·단체 대표들이 협약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ESG 실천 확산...46개 기관·단체와 협약

군의회·여성단체협의회 등 참여 “기후변화 대응·탄소저감 실천 앞장”

해남군이 ‘해남형 ESG(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의 지역 확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남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46개 기관 단체와 해남형 ESG 실천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하고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남군을 비롯해 해남군의회, 광주지방가정법원 해남지원, 해남교육지원청 등

15개 기관과 해남군 이장단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약서에는 해남형 ESG 실천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이행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내용을 담았다.

해남군 기관·단체는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정책, 탄소저감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군은 관내 기관·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해 ESG 실천의 범군민적 확대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해남군은 올해 시무식과 함께 민선7기 ‘빛나라 땅끝, 다시뛰는 해남’의 군정 비전을 ESG 윤리경영으로 완성하는 해남형 ESG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을 행정의 영역으로 확장해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재개장

화~일 오전 9시~오후 6시 무료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4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던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를 10일부터 재개장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는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놀이터는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의 견주가 동행해야 한다. 13세 미만의 견주는 안전을 위해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또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반려견을 크기별로 구분해 출입한다. 단, 질병견, 미등록견,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도시견, 맹견5종 등은 출입할 수 없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장일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군 가족센터 나눔봉사단 본격 활동

진도군 가족센터 가족나눔봉사단이 최근 발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가족나눔봉사단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가족단위의 봉사자들이 매월 첫째주 주말을 이용해 환경·하천정화활동, 친환경비누 만들기·나눔, 김장김치와 반찬 나눔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임으로 올해 10개 세대가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수세미제작, EM 흙 공을

이용한 하천 정화활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지킴이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사회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가족센터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